

# 유럽선진 물류연수 및 EMO박람회 참관기

이 인 명 / (사)한국물류협회 부장

드라마에서나 있을지언정 미국의 맨하탄거리에 있던 국제무역센터가 붕괴되는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수천명의 희생자가 난 후 7일째인 지난 9월 16일 (사)한국물류협회가 주최한 유럽물류연수 및 하노바전람회 참관단 22명은 오전 11시부터 인천국제공항 12번출구 만남의 장소에 한두명씩 모이기 시작하였다.

간단한 인사와 인원확인, 주의사항 전달과 테러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비는 묵념을 마치고 6박 7일간의 두려움과 기대의 유럽연수는 시작되었다.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였으나 제한된 지면관계로 하노바전람회와 노테르담항의 컨테이너전용부두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탑승한 비행기는 Lufthansa-718편으로 40분정도 지연되어 인천공항을 이륙하여 모스크바 북단항로를 경유 10시간여에 8,400Km를 날아 목적지인 '숲의 나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여 입국후 버스로 숙소가 있는 괴팅겐의 호텔에 도착하니 오후 10시반. 방을 배정한 후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대신하였다.

다음날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하노바전람회장으로 이동하여 참관을 시작하였는데 하노바전람회는 전시장규모가 164,162㎡(약 5만평)

로서 전용버스가 운영될 정도로 광대하였으며, 주요전시 내용은 공장자동화·유연생산시스템·산업용 로봇·기계류 및 정밀공구·수송장비·보관기기·조립엔지니어링·CAD/CAM·조립기술 등 세계의 최첨단 기계와 시스템, 솔루션 등이 전시되었다.

선진국들의 기술잠재력과 최신기계의 성능에 놀랐으며, 4년(2001년부터 2년주기 개최)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전람회에 태극마크도 선명한 28개의 우리기업이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환경여건하에서 세계기업들과 경쟁을 벌리고 있는 우리기업의 관계자들의 노고에 뜨거운 성원과 감사를 보냈다.

금년도의 전람회에는 38개국에서 955개 업체가 참가하여 좀더 편리하고 생산성의 자기제품을 자랑스럽게 뽐내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적인 젊은 기술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공업선진국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

전람회에서의 점심은 천여명을 수용한다는 호프전문집을 찾아 분고장에서 호프 한잔에 치킨과 돼지다리 튀김 등을 맛보면서 이국의 정취를 만끽하였다.

다음은 음악의 대가인 '바하'의 출생지인 함

브로그 호텔을 새벽 5시에 출발하여 52인승 소형여객기로 2시간여를 비행하여 '육지가 해수면보다도 4.5m가 얇고, 심심한 천국'이라는 네델란드의 암스텔담스치폴공항에 도착한 후에 로테르담항구의 컨테이너전용부두의 시찰을 위하여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

도로주변에 끝없는 푸른 초원과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말·양떼들, 깨끗하고 여유있는 도로, 준비하게 늘어선 화물자동차의 연속, 도로주변에 위치한 창고 등은 유럽물동량의 41% 정도를 처리한다는 물류선진국을 실감케하였다. 해수면이 높아 가는 곳마다 수로와 호수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 운행중 백조의 다리가 있는 마스크강을 향하다 보니 큰 건물에 조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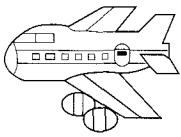
이번의 미국 테러사건을 온 세계가 경악하며 추모함이라. 드디어, 버스가 도착한 곳은 네델란드가 자랑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컨테이너 터미널!, 버스의 위치를 확인한 한진해운의 이상의 부장과 ect delta terminal의 pieter 담당관이 터미널입구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주며, 버스에 동승하여 터미널상황을 브리핑하는 도중 7,000여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한 MERSK사의 전용선박에서 하역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분주히 움직이는 캔트릭라인, 컨테이너를 2개씩 탑재한 후 질서정연하게 야드로 운반하는 무인자동트랙터들, 수심 17m의 자연조건 등 감탄스러웠다.

네델란드가 심혈을 기울려 개발한 이 컨테이



독일 물류기자 전문생산회사 SIEMEN사 방문



## 참관기

길이 3.4Km, 컨테이너크레인 25기, 트랙터 162기, 샷시 105기, 무인자동트랙터 160기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강점으로선 신속·정확한 loading & unloading, 무인자동화에 의한 안전작업, 철도·육로·바지선 등의 다양한 연계수송 체계, 24시간 연중 무휴작업, 작업지시를 하면 30분 이내에 출고, 인근에 30개의 주요 공업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설명자는 향후의 터미널 개발계획까지 브리핑을 하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으나 본인의 금년 실적전망의 물음에는 다소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2000년도 실적만큼을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들으니 유럽에서도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유럽의 관문인 네델란드의 물류현장과 독일의 물류업체를 두루 시찰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나라도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의 확

산과 동북아지역에서의 물류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학계·연구기관·물류전문인들이 의견을 모아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해 본다.

금번의 물류업체 시찰과 전람회 참관은 "기업경영에 있어 물류혁신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며, 경쟁우위 확보 또한 물류에서 찾아야 한다."는 기업물류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물류에 있어서 고객위주의 물류개발, 글로벌물류시스템, 물류정보화, 물류자동화 및 지속적인 물류개선 등의 노력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우위 확보에 직결되는 요소들로 판단되어 저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의 물류도 이론과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중지를 모으고, 나아갈 목표를 설정하여 중단 없이 실행하는 노력을 경주할 때 물류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앞당겨 이루어 질 것이라는 본인의 생각은 지나친 기우일까? [ko](#)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835-9041~5